

21세기의 침례교회를 위하여

—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

엄 원 식

<구약학 · 교수>

서 론

새로운 천년기(millennium)를 맞이하여 초입기에 들어간 오늘 이 땅 위의 침례교회들은 희망과 긴장 속에서, 희열과 두려움을 함께 지니고 있다. 21세기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파수꾼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우리는 바람직한 교회상의 형성작업과 그 사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침례교회의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봄과 더불어 도래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침례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교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이상적인 교회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3밀레니엄 시대의 교회는 물론 20세기의 교회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옛 세기의 교회와 새로운 세기의 교회는 모두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두 교회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

게 예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책임을 공유한다. 새로운 교회에서의 변화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우리는 조만간 그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많은 새로운 교회들이 이 세대에 태어날 것이다. 소수의 옛 교회들이 거둬낼 것이니 그들은 실제로 죽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회들과 거둬낸 교회들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과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들에 미래를 걸고 희망을 찾고자 기대해 볼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는 15억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다. 세계의 4대 강대국인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세력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한반도는 남북이 나뉘어져 있으면서 냉전 논리의 갈등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일본의 핵 개발을 자극하고 중국의 핵 보유를 정당화 해주며, 미국과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핵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무효화 시켜가고 있다. 중국이 수폭실험을 계획하는가 하면, 일본은 몬주의 고속증식로에 이어 도카이무라에 플루토늄 70kg을 축적하고 있어 언제나 핵 무기화 할 수 있으며, 북한은 결코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남한도 핵 재처리 시설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암암리에 형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그 해답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땅에 있으나 하늘의 뜻을 이루는 곳이며, 이렇게 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결국 선한 목자로서 세상에 생명을 제공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I. 사이버 교회 시대의 도래

유명한 고대근동 고고학자 C. W. Ceram은 “신들, 무덤들, 학자들”이란 저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그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류 5천년의 역사에 중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서구의

몰락』이란 명저를 낸) Oswald Spengler가 생각했던 바와 같이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의 로마 제국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원전 4천년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유사 이전의 인간들처럼 눈을 뜨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²라고 하였다. 오래 전에 나온 필자의 출처 : 『구약성서의 수신학』(*The Biblical Theology of Numbers in the Old Testament : Introduction to the Biblical Numbers as a Patterns of Thought and Practice*)의 제5장 결론 편에는 한편의 컷이 실려 있다. 그것은 해골 골짜기에 3개의 십자가가 서있는 그림이다. 수억만의 인간들이 죽어서 그들의 해골이 범람하는 강물을 이룬 그 죽음의 골짜기의 맨 앞에는 컴퓨터가 위세 당당하게 십자가 위에서 버티고 서 있다. 그 뒤로 얼마 떨어져서 나치당의 휘장을 단 히틀러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저 멀리 ‘만왕의 왕’이란 팻말을 붙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다.³ 이 그림은 지구의 미래는 컴퓨터가 지배하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로 인간성은 말살되고 학살당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며, 여기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인 자리로 복귀해야 할 당위성이 있게 된다. 구약성서는 오래 전에 이미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 : 4)

현대의 과학문명의 침병인 컴퓨터는 21세기에는 신학과 교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컴퓨터를 응용한 단계는 초보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컴퓨터의 교회와 신학분야에의 활용은 점차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교회는 그의 목회사역에 있어서, 설교

¹ C. W. Ceram, *Gods, Graves & Scholars*(New York, Alfred A. Knopf, 1967).

² Alvin Toffler, *Future Shock*, 김욱 역(서울 : 대일서관, 1983), p. 29.

³ 엄원식, 『구약성서의 수신학』(대전 :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1983), p. 220.

준비, 교인관리, 교회 재정관리를 컴퓨터에 위탁하게 될 것이다. 지능화된 컴퓨터를 이용한 사무처리로 인간이 직접 관여할 때보다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점차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인간성이 말살되어 갈 것은 틀림없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교회’가 등장하게 되고 널리 보급될 것이다.⁴ 교인간의 정보교환과 대화와 친교뿐만 아니라 성경교육, 그룹활동, 동호인 모임 등을 비롯하여 목회활동의 모든 지식정보망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하여 목회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문인처럼 능력을 갖추어서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익명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모든 교인들이 교회운영에 참여하는 목회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제도나 신학이념보다 우선하는 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 또는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제도나 교리가 지배하던 교회의 시대가 끝나가고 마침내는 인간과 성령이 지배하는 새 시대가 점차 교회들 안에 열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교구나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예배와 친교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교회’가 등장하게 될 21세기에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인위적인 기술에서 하이테크로, 계급체제에서 네트워크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제일 또는 세계 제일의 성서해석 또는 설교가 아니고서는 좋은 반응을 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인간성의 해방과 생의 의미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예배의 형식과 내용이 요청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만의 영역인 초자연적, 형이상학적, 신비적, 기적적 및 영적인 부문들의 개발과 신장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기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의 정치와 행정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모든 정책이 단기에서 장기로, 지역경제에서 세계경제체제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바뀌고 모든 것이 점차 국제화 세계화로 되어갈 것

⁴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성당 등장,’ 『조선일보』(1998. 9. 26.), p. 21.

이다. 따라서 여기에 부응하는 교회의 신앙적, 사회적 책임이 요청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의 정치와 행정 및 신조와 교리에 있어서도 편협성과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확일성과 후백논리를 타파하고, 아울러 다양성과 함께 개인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존중받게 되며, 개인들이 특정 그룹의 지배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의 기대와 개성과 자율이 최대한으로 보장된 교회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교회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해왔던 신유와 기적의 체험 같은 신앙의 신비적 영역이 점차 중요시되며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행사에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방법론 개발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더욱 강조되어 이제 도래하는 21세기에는 메마른 교리적 설명만으로 신도들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사회 속에서 실현될 때에만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 강조를 두면서 새로운 세기의 침례교회상에 기대해 보고자 한다. 그렇게 되자면 자연스럽게 오늘의 기계문명과 물질만능주의의 팽창으로 위축된 정신문화와 영적 세계의 재건을 위하여 21세기의 침례교회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야훼의 영성에 사로잡힌 예언자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침례교회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II. 성서 교회론의 배경

고대근동세계에서 보편화되었던 우주관과 성전론은 구약교회론의 문화적 배경이 되었으며, 신약교회의 교회론이 뿌리내린 토양이 되었다. 고대근동의 주민들은 우주는 하늘과 땅과 지하의 3세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소는 이들 3세계를 연결하여 열고 닫는 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 : 18~19)

여기서 “음부의 권세”(πύλαι ᾗδου)란 “지하세계의 대문들”을 말하며 직역하면 “지옥의 문들”(the gates of hades)이다. 교회는 천상세계와 지상세계 및 지하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라는 개념이 들어 있다. 고대근동에서는 장로들이 높은 성채(요새)의 성문 앞 광장에 모여 재판도 하고 공무도 집행하였다(신 21 : 19, 25 : 7). 이들 성채의 대문들은 천상의 궁궐과 지하의 지옥의 문들을 연상시켜 주었고 권세를 뜻하게 되었다.⁵

하렐슨(Walter Harrelson)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는 고대근동세계의 풍산제의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였다.⁶ 그는 구약시대의 우주론은 수메르인들의 우주론과 성전관이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페니키아를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폰 라드(Gerhard von Rad)의 유형론적 추론을 소개하고 있다.⁷ 고대근동에는 천상과 지상의 것들 사이에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치와 조화에 대한 신화적 개념이 있었다. 거기에는 대우주(macrocosm)와 소우주(microcosm)의 일치와 조화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나라들, 강들, 도성들 그리고 사원들의 원형들(prototypes)이 일정한 별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상의 것들의 오직 모형이며 복사품들(copies)일 뿐이라고 하였다.⁸ 이러한 개념은 Sidon의 왕들인 Bodashtart와 Eshmunazar의

⁵ 오늘날도 터키에서는 정부를 “높은 문”이라고 부름으로써, 대문과 권세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⁶ Walter Harrelson, *From Fertility Cult to Worship : A Reassessment of the Worship of Ancient Israel*(New York : Doubleday Co. Inc., 1976).

⁷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Testament,” in *Essays on Old Testament Hermeneutics*, Claus Westerman, ed., : English trans. by James Luther Mays(Richmond, Va., : John Knox Press, 1913), pp. 17~49.

⁸ B. Meissner, *Babylonien und Assyrien*, vol. I, p. 110.

건물 비문들에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있는 shmm rmm(high heaven)과 shmm 'drm(magnificent heaven)은 도성의 부분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이리하여 지상의 시돈은 천상에 있는 그것의 원형의 복사판일 뿐이다.⁹ Falkenstein은 수메르 본문을 주목한 결과 지상사원에 일치하는 천상의 원형은 우주의 반쪽으로 되어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정형(type)과 그것의 대형(antitype) 사이의 비율을 증가시켜 가는 가장 오래된 설명이다.¹⁰ 아카드 본문 Enuma Elish 서사시의 제6서관은 바벨론 도성과 그곳의 성소(sanctuary)가 최초로 이 세상에 건립된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다. 한편 Berytos(Beirut)의 도성은 후기 헬레니즘 시대에도 αἴθερο ἑλιχον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고대근동세계에서는 지상에서 어떤 특별한 행위들이나 사건들에서 그 의미가 제기되어졌을 때에 그 해답은 항상 그것들의 원형(原型)들을 참고로 해서 알게 되었다. 에누마 엘리쉬에는 Marduk 신이 피조물인 아누나키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거처로 Esagila 신전을 건립한 후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인간들이 신들을 공양하고 성소를 잘 돌보게 하라! 인간들은 신들이 흠향할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들의 주문은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땅에도 만들게 하라! 검은 머리 가진 자들이 (마르독을) 공경하게 가르치라! 종들인 인간들은 항상 그들의 신들을 기억하도록 하라!”¹¹

이와 같이 마르독 신이 천상에 있는 신전과 똑같은 것을 지상에도 만들게 하여 인간들이 신들에게 예배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즉 하늘성

⁹ Lidzbarski, *Altsemitische Texte*, I. pp. 16ff. 19f, O. Eissfeldt, *Ras Shamra und Sanchumjaton*, pp. 62ff.

¹⁰ *Oxford Editions of Cuneiform Inscriptions*, p. 53; Lines 13~14.

¹¹ E. A. Speiser, “The Creation Epic,” in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 by James B. Pritchard(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p. 69(이하 ANET로 약칭함).

소의 짝이 바벨론에 있어 하늘과 땅이 서로 연락하는 회집장소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벨론 남부에 있는 대신전탑 Ziggurat은 땅과 하늘을 신비롭게 직접 연결하는 상징으로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이 관계를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 지상에서의 인간들의 행위들이 그들의 신들의 행위들의 본을 좇아 행하는 한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일이며, 인간의 삶을 고무시키는 것이 된다.¹² 이리하여 신전은 이 신들에게 예배하는 곳이며 예배는 곧 신들의 본을 좇아 살기를 고백하는 것이 된다.

신약교회는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s)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린다. 원래의 사도신경의 그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He descended into hell.),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에서 주님은 고난을 받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승천하신다. 아카드의 신화인 “이쉬탈의 지하세계에로의 하강”(Descent of Ishtar to the Nether World)에는 이쉬탈이 ‘음부의 권세·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고통과 독백을 기술하고 있다.¹³

● 지하세계(음부)란 어떤 곳인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 Ereshkigal의 나라! 어두운 집! 이르킬라의 집! 들어간 자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캄캄한 집! 그 길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집! 들어가면 빛을 잃어버리는 집! 티끌이

¹² Walter Harrelson, *From Fertility Cult to Worship*, 장일선 역 (서울 :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0), pp. 15~16.

¹³ E. A. Speiser, "Descent of Ishtar to the Nether World," in *ANET*. pp. 106~9.

식량이며 진흙이 음식인 곳! 새 날개 같은 옷을 걸치고 [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옷을 입는 곳] 대문과 빗장이 먼지로 덮여 있는 곳으로(I : 1~11)

● 권세의 대문을 열려면?

이쉬탈이 불귀의 땅의 대문에 당도했을 때, 그 여신은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지기야! 너는 대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리니 대문을 열어라! 네가 대문을 열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그 대문을 부수어 버리리라! 내가 빗장을 꺾으리라!’(I : 12~17)

내가 죽은 자를 일으키리라! 산 자를 먹으리라! 그러면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더 많아지리라! 문지기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 ‘귀부인! 참으시오! [문을] 집어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에르시키갈 여왕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 드리리이다’(I : 20~26)

● 여신의 수난과 고통은?

보소서! 당신의 여동생 이쉬탈이 대문에서 기다립니다. 위대한 축제를 지키는 이여! 왕 Ea 앞에서 깊음을 흔들여 놓으신 이입니다. 에르시키갈이 이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은 쪼개놓은 나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의 입술(šapat-š[a])은 상처받은(šabat) 갈대처럼(kūninu-reed) 새까매졌다(I : 30)

웬일인가? 무엇이 그녀를 오게 했는가? 보라! 내가 아누나키와 더불어 물을 마셔야 하는가? 내가 빵 대신 진흙을, 술 대신 진흙탕 물을 마셔야 하는가? 내가 부인들을 뒤에 두고 온 남자들로 인해 슬퍼해야 한단 말이요? 내가 여인들의 무릎에서 떨어진 처녀들 때문에 슬퍼해야 한단 말이요? 문지기야! 가서 대문을 열어라! 옛날의 규례대로 그녀를 잘 대접하여라! ……(I : 31~40)

아무도 돌아올 수 없는 땅의 대궐이 그대를 반길 것이요(I : 41)

Namtar여! 나의 궁궐에 가두어라!(I : 68)

이쉬탈을 60개의 고통에서 풀어 주어라! 그녀의 눈의 고통, 옆구리의 고통, 심장의 고통, 발의 고통, 머리의 고통, 그녀의 전신 백체의 고통들에서!(I : 69~75)

이상과 같이 지하세계의 대문을 통과하는 이쉬탈 여신의 수난과 고

통은 성서의 다음 구절들을 연상시켜 준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요 6 : 4, 7 : 2, 8, 10, 11, 14, 37 ; 마 27 : 15 ; 요 4 : 45, 11 : 56, 12 : 12, 20, 13 : 29)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 25 : 54, 28 : 2)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마 27 : 51~52)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눅 23 : 31)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여 마시우고”

(막 15 : 36, 마 27 : 48)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마 27 : 29)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사 58 : 5)

“내가 목마르다 하시며”(요 19 : 28)

“고민하고 슬퍼하사”(마 26 : 37, 막 14 : 33)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막 16 : 10)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막 16 : 3)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사 53 : 5)

본 논문에서 지면 관계로 이쉬탈 여신이 일곱 대문을 통과하는 모습과 마침내 지하세계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은 생략하지만 본문에는 다시 상승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예배는 예배 참여자가 자신의 생을 신의 하강과 상승에 일치시키는 표현과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예배자가 성전으로 나아올 때 그는 이미 음부에서 올라와 지상에서 죽음을 이기신 신을 찬양함으로 천상의 원형적인 성소예배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하늘, 땅, 지하의

3세계로 구분된 우주관과 그것들을 연결하는 성전관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사고의 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것들은 구약성서 속에서 야훼와 다른 신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으로 묘사된 문학적 표현들 속에 그 신화들의 잔해들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

“이리하여 하늘과 땅, 또 그들의 ‘모든 군대’[כָּל־צְבָאוֹת], and all their host(array, army)]가 완성되었다”(창 2 : 1)

“그 날에 야훼께서는 날새고 모진 칼을 빼어들어 도망가는 리위야단, 꿈틀거리는 리위야단을 쫓아가서 그 바다 괴물을 찢러 죽이시라”(사 27 : 1)

“그 힘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의 힘은 라합을 쳐부셨도다. 그의 콧김으로 하늘을 단장하고 리위야단은 도망가다가 그의 손에 찢려 죽었도다”(욥 26 : 12~13)

“구름을 타고 날으시고 바람날개로 내리 덮치셨도다”(삼하 22 : 11)

이 밖에도 시편 89편, 104편, 사사기 5장, 신명기 33장, 시편 68편, 하박국 3장 등에는 신화가 인용된 비유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지상의 성소는 천상 성소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신비적·사색적 유형론(mythological-speculative typology)은 신·구약성서에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model)을 좇아 지으라”(히 8 : 5)

“그럼으로 하늘에 있던 것들의 모형(copies)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히 9 : 23)

신약성서의 이러한 태도는 모세가 만든 성막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보여주신 성막의 원형(תבנית; 모형, 식양, 계획, 설계)을

본떠서 만든 것이며(출 25 : 9, 40), 하늘에 있는 원형이 되는 성막에는 “정결케 할 필요가 없는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성소, 성막)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히 9 : 24~28)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소를 중심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는 에스겔에게 주어진 두루마리(scroll)와 같이 이미 야훼의 손에 들린 “천상의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선재(a pre-existence)해 있었던 것이었다(겔 2 : 85). 이렇게 하여 지상성소의 열쇠는 천국과 지옥의 대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신화적-사색적 유형론은 원래의 야훼신앙에서는 거의 낯설은 것으로서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신화적 개념의 세계에 대한 초보단계의 형적들은 구약성서에는 거의 없어서 야훼신앙과 깊은 관련을 추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여하간 고대 이스라엘의 성전관은 마침내 고대근동세계의 신화적인 우주관과 성소론에서 탈출하여 그것들을 극복하고 역사적 현장으로 나아간다.

Ⅲ. 신약교회의 뿌리로서 구약교회

침례교회는 신약교회이다. 신약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8)라는 신앙고백이 그 기초요 중심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그 힘이시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이러한 신약교회의 교회관은 구약교회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그 뿌리가 자란 토양은 고대근동세계의 우주관과 성전론이다.

교회라고 번역된 말이 신약성서의 사도행전, 서신서들 그리고 계시록

등에 여러 차례 나온다. 이곳들에서 사용된 말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교제 혹은 그 교제의 보편적 표현으로서의 지역적 회집을 가리킨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의미있는 명칭으로서 “교회”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새로운 이스라엘” 혹은 “유대교 안에서의 새롭고 진정한 길”을 생각했을 것이다.¹⁴ 예수께서는 교회란 용어로 “카할”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회중” 곧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을 뜻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말씀은 “너는 새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새 백성, 내 이름을 믿는 자들의 새 교제(공동체)의 시작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에게서 시작된 것은 그리스도의 신도들의 새 사귄다.¹⁵ 그런데 교회란 말이 때로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다. 우리는 “교회”라면 흔히 기성교회의 건물, 기관, 예배, 활동 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의미와는 아주 다른 것들이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교회”는 구약교회의 용어였다.

대부분의 개신교파 교회들이 스스로 신약교회를 자처하면서 그 기원과 뿌리를 망각하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구약성서에서의 명칭은 ‘카할’(קהל)이다. 구약에서 123회 사용되었고, 70인역에서는 그 대부분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21회는 συναγωγή나 πλῆθος로 번역하였다. ‘카할’의 구약적 개념은 전쟁에 소집된 병기든 자들(창 49 : 6, 민 24 : 4, 삼하 20 : 14, 대하 20 : 5)로서, 유아와 부녀자도 포함된 백성들의 모임(느

¹⁴ George Johnston, *The Doctrine of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Cambridge : University Press, 1943), pp. 35~45. Sherman E. Johnson,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tthew*, in *The Interpreter's Bible*, ed. by George A. Buttrick(Nashville : Abingdon Press, 1964), vol. VII. pp. 451~52.

¹⁵ Johnson, pp. 451~52, Johnston, pp. 35~45.

8 : 2, 민 16 : 33)이며, 이방민족(겔 17 : 17, 27 : 27, 32 : 22)과 악인들(시 26 : 5)도 포괄한다. 그들은 제사와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대상 13 : 2~4, 29 : 10, 대하 20 : 5, 14, 30 : 2, 4)들로서 그들은 성전에서 모인다(시 22 : 23, 89 : 6, 149 : 1). 이런 구약의 교회, ‘카할’을 신약성서에서는 “주의 교회”로 불렀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히 2 : 12)

여기서 일컫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주의 교회”는 구약의 시편 22편 22절에 나오는 ‘카할’을 지칭한 것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형제요 한 자녀로서 이런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는 교회”(히 2 : 11~12)는 ‘카할’로서 구약 교회이다. 70인역에서 “주의 교회”(ἐκκλησία κυρίου, 민 16 : 3, 20 : 4, 신 23 : 2~9, 미 2 : 5, 대상 28 : 8)로 번역된 것은 “야훼의 총회”(לַיהוָה אֲסֻפָּה)이다. 이러한 구약교회는 예언자들을 통해 율법주의의 벽을 헐고 이방인들과 악인들까지도 구약교회의 지체가 됨을 확인하고 있다(암 9 : 7, 사 56 : 3~8, 겔 47 : 22~23, 말 1 : 11 참조).

이러한 구약교회는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가 짝을 이룬다. 예를 들면 :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 12 : 23~24)

여기서 일컫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와 짝을 이루며,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 7장 8절에 나오는 “생명의 도” 즉, “산 말씀”을 가졌던 “광야교회”를 지칭한 것이며, 이 “광야교회”는 “솔로몬의

성전”과 대비를 이룬다.¹⁶

구약성서에서의 “광야교회”인 ‘카할’은 “만남의 광장, 즉 회막문에 모인 총회”를 일컫는다(레 4 : 14, 16 : 33, 민 10 : 3, 7, 20 : 6, 10). 그리고 “하늘의 교회”는 교회의 우주론적 표현으로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성”의 장엄한 표현을 상기시켜 주며, 이 “하늘의 도성”은 후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보편화 된 개념으로써 그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성”의 주민은 천사들, 인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들은 모두 천부적으로 그 도성의 거주권을 갖는다.¹⁷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군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히 12 : 22~23)는 “하늘의 교회”를 지칭한다. “땅의 교회”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괄한 새 이스라엘 교회를 지칭한다. 그 형태와 구조는 달리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 신앙적 경험을 나타내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곧 “회막”(Tent of Meeting), “성막”(Tabernacle), “성전”(Temple) 및 “회당”(Synagogue) 등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하여 구약의 후기 역사문학에서 ‘카할’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예배 공동체로 확인되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다(대상 28 : 8, 29 : 1, 10 : 20, 대하 29 : 28 이하, 30 : 2, 4, 17, 23, 24, 25, 참조; 스 10 : 12, 14, 느 8 : 2). 따라서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공동체이며, 그 역할로 올바른 예배(제사)가 강조된다. 신약성서의 가르침도 그러하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¹⁶ J. I. Packer, “The Nature of the Church,” *Basic Christian Doctrines*. ed. by Carl F. H. Henry(Baker, 1971), p. 242 참조.

¹⁷ Alexander C. Purdy, *Hebrews*, in *The Interpreter's Bible*, ed. by George A. Buttrick(Nashville : Abingdon Press, 1965), Vol. XI. pp. 745~48.

함이니라……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 : 24~27)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전 10 : 1~4)

따라서 Robert L. Saucy의 주장은 옳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신약의 교회들을 그대로 재생하자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¹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옛 이스라엘을 대치했다는 주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옛 이스라엘 즉 ‘구약교회’를 대신하여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보다는 ‘참 이스라엘’을 구현하려는 것이 신약교회의 관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로서 이것이 구약교회의 궁극적 모습이라는 교회론은 Henning Graf Reventlow와 J. I. Packer에 의하여 주장되었다.¹⁹

IV. 제3밀레니엄 시대의 성령의 역할

오늘날 교회들을 정통이나 비정통으로 분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교세의 우열을 측정하는 기준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해왔기 때문

¹⁸ Robert L. Saucy, *The Church in God's Program*, 김기찬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62), pp. 6ff.

¹⁹ H. G. Reventlow, *Hauptprobleme der Biblischen Theologie in 20 Jahrhundert Erträge*(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1983) : "Exkurs : Isrel und die Kirche," pp. 67~125; J. I. Packer, "The Nature of the Church," *Basic Christian Doctrines*, ed. by Carl F. H. Henry(Baker, 1971), p. 24; 김중은, 『구약의 말씀과 현실』(서울 :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구약의 교회," pp. 173~188. 특히 p. 188에서 재인용했음.

이다. 가톨릭교에서 보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비정통이요, 헬라교회와 로마 교회는 각기 자파를 정통으로 자처하고,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루터파와 개혁파는 서로간에 정통을 자처하고 있다. 러시아에는 헬라교회가 정통이고, 스페인에는 로마 교회가 정통이고, 잉글랜드에는 영국교회가 정통이요,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가 정통이며, 북부 캐나다에서는 프로테스탄트 감독교회가 정통이요, 남부 캐나다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신자를 가진 로마 교회가, 그리고 미국의 뉴잉글랜드에서는 복음적 신조를 가진 회중교회들이, 남부의 성서 벨트에서는 침례교회들이, 그리고 유타(Utah) 주에서는 몰몬 교회가 정통을 자처하고 있다.

루터파, 칼빈파 등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소위 “이단과 분파주의자들”로 몰려왔고, 또한 침례교도들의 주장은 이들 가톨릭과 개신교도들에 의해 이단과 분파주의자들로 몰렸던 자들의 신앙 속에 보존되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2천년의 역사를 J. M. Carroll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암흑시대라고 불리웠던 1200년 동안 5,000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죽었다. ……이 잔악한 핍박의 쇠망치는 순교의 피바다를 이루면서 바울파, 아놀드파, 헨리파, 베드로-부르시안파, 알비겐스파, 웰텐스파 그리고 재침례파의 사람들 위에 가해졌다. 물론 박해의 잔악한 정도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야기의 무서운 부분을 빨리 지나가 버리기로 하자”²⁰

이와 같은 침례교회의 신앙의 뿌리는 자연히 우리들의 시선을 소위 정통사관 쪽보다는 이단과 분파주의자들의 사관편에 기웃거리게 만든다. 기독교 역사상 오늘의 역사신학 또는 역사철학에 대한 바탕을 제공한 두 거인은 정통사관 편에는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이란

²⁰ J. M. Carroll, *The Trail of Blood*, 김대현, 조천영 역(서울: 혜남사, 1990), p. 52.

22권의 저작을 쓴 성 아우구스티누스(Saint Augustine of Hippo, 354~430)가 있고, 소위 분과이단사관 편에는 역사를 성부·성자·성령의 3위에 따라 3시대로 구분한 요아킴 폰 피오레(Joachim von Fiore(Floris), 1132~1202)가 있다.²¹

아우구스티누스는 5세기 초엽에 몰락해 가는 로마 제국을 보면서 앞날을 근심하는 신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미래관을 피력했다. 즉 역사의 섭리는 전지전능하신 야훼의 뜻에 달려 있다. 거룩하신 야훼가 창조하신 세상에 악과 재난과 고통이 편만한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잘못 행한 선택의 권리 즉 자유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신의 의지를 수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사는 ‘아벨의 신의 도성’과 ‘가인의 인의 도성’에 의하여 상징적으로 대립이 계속된다. 그러나 이 대립투쟁은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반하여 12세기의 요아킴은 구약성서에 나타난 인물들과 신약성서에 나타난 인물들이 서로 꼭 맞는다는(*concordia*) 영해를 계시 받았다는 ‘영원한 복음’(계 14:6~10)을 썼다.²² 그의 주석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조화에 관한 책』(*Liber concordie Noviac Veteris Testamenti*, 1184)에서는 자신의 역사철학을 2개의 짝을 이루는 형태로, 즉 역사의 위대한 두 가지 섭리인 신약성서와 구약성서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적 영성이 신약성서와 구약성서의 문자에서 나온다면 역사 자체는 그 두 시대의 뒤를 이어 영혼의 최종시대에 이르러 그 정

²¹ Rudolf Bultman, *History and Eschatology: The Presence of Eternity*(1955), p. 81.

²² 요아킴은 영혼을 깨우치기 위해 성서의 문자와 씨름하는 자는 영적인 이해를 얻게될 것이며, 이러한 정신적 노력을 통하여 영적인 순례를 하는 자는 성서문자의 딱딱한 껍질을 깨고 그의 영혼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였다.

점을 이룬다고 했다. 여기서 그의 삼위일체적인 역사철학이 탄생했다. 3개의 인격이 3개의 시대 즉, 성부·성자·성령의 지위 속에서 시간적으로 구조화된다. 그의 ‘도해서’(Liber figurarum, 1937년 발견)에서 그는 정점에 이른 역사시대의 모습을 꽃이 만발하고 꼭대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로 표현하는 삼위일체설을 기묘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그렸다. 요아킴은 제1기의 성부시대, 제2기의 성자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제3기의 성령시대가 오게 되면 계급제도가 있는 교회나 국가는 없어지고 자유공동체로 대체되어 고리대금업자들, 물가를 조정하는 악덕상인들, 파렴치한 재판관들과 세리들이 대량 살육되고 모든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되며, 사유재산 제도가 사라지고 모든 물건이 공유화 될 것이며, “모든 재산이 단 한 사람의 재산이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실로 한 목자와 한 무리의 양떼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성령시대에는 제도나 권력이나 계급이나 부의 독점이나 억압이나 소외가 없는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의 해방된 신비공동체가 이루어진다. 성령시대에는 제도에 얽힌 교회나 문자에 매인 성서에서 해방되어 그것들을 초월하고 능가한다. 이러한 종말관을 가진 요아킴은 당시의 가톨릭 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음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로 원시기독교 이래 당시까지 금압(禁壓)되었던 종말관에 대한 소박한 신앙을 새삼 불붙게 했다. 오늘의 기독교회는 원래 종말론 신앙에 의지했던 신도들의 예배공동체였으며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관이 비성서적인데 비해 요아킴의 사관은 원래의 성서적 사관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으로 최근에는 점차 학자들의 평가와 관심을 끌고 있다.²³

요아킴의 이러한 역사신학은 새롭고도 혁명적인 구속사관이다. 이리

²³ 요아킴은 그가 페투루스 롬바르투스를 공격한 글이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잠시 명성이 흐려졌으나, 그의 전생애를 통해 성스런 영감을 타고난 예언자로 추앙받았다. 마침내 가톨릭 교회의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에서 그를 새로운 신령한 인물로 평가하고 예언자로 복권시켰다.

한 역사관은 성서를 세계사의 중추로, 교회를 그 모형으로 봄으로써, 성서야말로 역사 이해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역사해석은 필연적으로 예언이 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던져주고 동시에 현재를 변혁시켜 준다. 물론 그의 이러한 사상이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혁명적인 소질을 띤 선동형은 아니었지만 그 후에 일어난 천년왕국 운동들의 선구자가 되었고 특히 종교개혁과 함께 크게 세력을 신장한 재침례파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 역사에서 1525년 농민운동의 주모자요 과격한 신령주의자로서 재침례파였던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 1490~1525)는 사회개혁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음으로써 그의 ‘재침례교도의 개혁운동’(the Anabaptist Reformation)의 본질마저도 함께 오해를 받았다. 뮌쩌는 후기의 신령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계시를 주장하였다.²⁴ 그는 요아킴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혁명을 통해서 성령운동을 주도하면서 새 시대를 대망했던 자이다. 그의 추종자들은 제도적인 교회들로부터 억압을 받아오면서, 권위에 도전하면서 새롭게 도래할 성령의 시대를 갈망하면서 새로운 천년왕국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갔다. 뮌쩌의 추종자들 중 한 사람인 그의 첫 번째 개종자는 한스 후트(Hans Hut)였다. 그는 천년왕국 사상의 옹호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있어서 불경건한 자들에 대항하여 신성하게(godly) 무력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⁵ 후트는 훈련을 통해서 복종하는 법을 배웠고 침례를 받은 후에는 Franconia, Austria, 그리고 Moravia 등지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전파하였다. 여행 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리하여 재침례교도들의 모임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그의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의 열정적인 복음전도

²⁴ Albert Henry Newman, *A History of Anti-pedobaptism*(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6), pp. 67ff. “Thomas Müntzer and the Pesant’s War.” VII., pp. 77~87을 보라.

²⁵ Henry C. Vedder, *Balthasar Hübmaier*(New York : G. P. Putnam’s Sons, 1905), pp. 160~61.

사역의 배경을 형성하였다. 그가 선포한 천년왕국은 무저항과 혁명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Frankenhausen에서 벌어진 농민전쟁의 2주기가 되는 날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자 다시 다른 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재침례교도들을 분열시켰고 많은 동역자들에게 실망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의 노력은 아우구스부르크의 감옥에서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을 맺었다. 그러나 독일의 여러 지방에서 일어난 열렬한 재침례교도 운동과 천년왕국 사상은 그의 영향력이 크며,²⁶ 그가 가는 곳에는 새로 침례받은 무리들이 교회를 조직하여 주님의 날을 예비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재침례교도들은 순교의 행렬을 이루었다.

이러한 침례교회의 역사적 회상은 진리는 언제나 교수대 위에 있고 죄악은 언제나 왕좌 위에 있음을 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박원근 목사(이수중앙교회)의 진단은 전적으로 옳다. 즉 “지금도 평신도를 활성화 시킨 교회들이 비약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재침례파, 침례교회, 웨이커나 메노나이트와 같은 교회의 평신도 전통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세기의 수도원 운동이나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에서 불분명하게 된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전도운동이 21세기에서도 평신도 운동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²⁷ 따라서 21세기의 침례교회들의 강단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성서연구와 기도생활 및 희생적 봉사와 사랑의 실천이 요청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신학교육의 갱신이 요청된다.

²⁶ John S. Oyer, “Anabaptism in Central Germany,” *The Mennonite Quarterly Review*, XXXV(January, 1961), p. 37.

²⁷ 박원근, “21세기 기장교회 목회 이렇게,” 『21세기의 도전과 한국 교회의 미래』(서울 : 한국 기독교장로회 신학연구소, 1994), p. 203.

V. 구약교회의 목표와 이상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의 신앙공동체, 즉 야훼에 대한 예배공동체의 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훼에 대한 신앙과 예배가 교회라는 공동체의 구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구약교회의 신앙과 예배는 공동체적이며,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목표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경험한 야훼의 구원행위가 그들의 예배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신앙고백으로 표현되었다. 즉 고대 근동세계, 즉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헬라, 로마 등의 초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수난의 역정으로 점철된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교회는 민족적 고난과 절망을 오직 야훼 신앙만으로 극복하면서 미래의 메시아 시대의 꿈을 길러왔다. 그들은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유랑하면서 고대근동의 자연신교들의 신화적, 속명론적, 순환론적 역사관을 벗어나 버리고 모세의 유일신 야훼 신앙에 결속되어 그의 율법을 생활화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래 하강선으로 하락하였다.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으로, 그리고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 역사는 기원과 과정과 목표를 갖는 것으로서 모든 악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그것을 이룩할 메시아를 대망하는 미래관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 역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소극성을 초극하여 앞날을 내다보는 미래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에 다다르도록 상승선으로 끌어올리려는 구약교회의 노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구약성서에는 풍성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경(平和境)이 나타났다. 그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야훼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전차 같은] 수레들을 불사르시도다”(시 46 : 9)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

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사 2 : 4, 미 4 : 3~4)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러나 해뿔은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11 : 6~9)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호 2 : 18)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사 35 : 5~6)

“ [하나님께서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계 21 : 4)

“ [야훼께서] 손을 펴서 모든 생물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시 145 : 16)

“그 거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사 33 : 24)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하리니”

(욥 33 : 25)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도다”

(사 14 : 7)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찌라”(겔 34 : 26~27)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시 67 : 6)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니”(사 35 : 1)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

류는 질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사 55 : 12~13)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사 65 : 21~23)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미 4 : 4)

이리하여 이 세상은 불의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간들이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환경에서 풍요와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복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 이리하여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사 65 : 17)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사 25 : 8)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 이것은 곧 예수의 기도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학교육의 장과 교회목회의 현장은 항상 복음의 초월성과 선교의 역동성으로 충만해 있어야 한다.

결 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초점은 교회이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인위적인 틀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가오는 세기에 ‘사이버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 교회의 위기는 한층 더 가중될 것이다. 그 이유는 비인간화되는 현실이 교회에서 더욱 극대화될 것이

기 때문이다. 교회의 생명력의 회복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침례교회의 역사는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었으니, 그것은 새 교회의 탐색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령의 지배가 극대화되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교회로서 침례교회는 구약·신약이 보다 깊게 조화를 이룬 교회관을 회복함과 더불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라는 위임받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목표와 이상의 실현을 위해 편협하고 획일적인 가르침에서 보다 넓고 깊게 구약의 가르침을 다시 확인시켜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극대화하고 두드러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활력을 얻어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유기체인 교회의 본질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으로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그 목적과 이상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